

哲學的 思惟의 理解

根源的 了解로서의 그 構造關聯(四)

金基錫

原理的인 省察, 이것은 自體 體系를 要求하고 論理를 要求 합니다. 한때의 直觀한 조각의 感覺이라고 해서 그것이 哲學的 了解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나 哲學은 安만해도 그 자신 “自己” 는 한 개의 『觀』 또는 『學』 으로 組織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哲學은 그대로 단순한 運動은 아닙니다. 哲學하는 일이 어느 意味의 作用이 되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依然히 運動의 뒤에 오는 反省이 되어야 합니다. 運動의 뒤에 온다고 해서 哲學을 가르쳐 단순한 觀念 또는 觀想이라고 해서 안됩니다. 運動의 뒤에 온다고 할 때 이 運動의 뒤에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개의 運動의 뒤에 오는 것은 실상 다른 한 개의 運動의 앞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行動에 대한 바른 認識이 새로운 行動을 創造, 建設하게 되지 안겠습니까.

헤-겔은 일찍이 “哲學” 을 存在의 世界에 대한 『나흐.뎅켄』 (追思惟)으로 보았습니다. 이 『나흐.뎅켄』 이란 實在나 現實을 떠난 헛된 觀想이 아니라 도저히 어디까지던지 客觀的인 實在 및 그 世界에 대한 理解이요. 省察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見解에 따라 現實에 대하여 觀念形態란 것을 對立시키기로 하면 이 觀念形態가 그 地盤으로서 哲學을 가지고 이 哲學이 그 基底에 現實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觀念形態-現實의 構造가 아니라 觀念形態-哲學-現實의 構造가 아니겠습니까. 人間이 가질 수 있는 一切의 理性的 領野 속에서 이 哲學的 思惟가 가장 세차게 現實에 마조 서고 가장 힘있게 “現實” 에 억매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思惟는 늘 어떤 對象에 향합니다. 對象에 향하지 않는 思惟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 思惟의 對象이란 그것이 客觀的 實在로서의 意味를 가집니다. 思惟는 思惟 그자 신을 思惟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思惟되는 思惟는 思惟하는 思惟에 대하여 作用에 대한 對象을 意味하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다.

客觀的인 實在의 世界 이것이 칸트의 이른바 物 그 自體가 아니겠습니까. 칸트는 認識主義觀과 認識客觀과의 사이에는 人間의 理性으로서 넘을 길이 없는 久遠한 渠溝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안습니까. 이 渠溝를 넘는 어떤 “交涉”이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은, 客觀的인 實在의 世界는 한갓 思惟의 對象만이 아니라 기실은 思惟의 根源이 되기 조차도 합니다. 그런데 이 實在의 世界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생각해 내려온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먼저 存在란 것이 있음을 압니다. 이 存在는 아시다 싶이 時間性的인 世界에 있어서 주어집니다. 存在는 말하자면 時間的인 存在입니다. 過去의 思索하는 이들은 存在의 時間性을 살피기 전에 어떤 超越的인 實在으로 생각이 잇글렀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說같은 것은 그 가장 代表的인 것이라고 하여 무방하겠습니까. 存在에 대한 “根源”의 理解를 企圖하는 哲學的인 思惟가 抽象的인 論理로 顛落 되기는 진실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存在의 背後에 超越的인 實在을 想定하기에 이른다는 전연 까닭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時間的인 存在는 眞實한 實在은 되지 못한다. 眞實한 實在은 時間的인 存在의 根源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時間的인 存在의 根源, 이것은 時間을 超越하는 久遠한 實在이 되어야 하지 안을까.

이러케 하여서 形而上學的인 思惟란 것이 생겨났고 그것이 자기를 『根源의 存在』의 學, 또는 『存在의 根源』의 學으로 主張또 辯護하여 내려온 것이 아닌가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形而上學的인 思惟가 “存在”의 根源을 무른 것을 나무라지는 안습니다. 存在의 根據를 못한다고 하면서 存在의 背後에 어떤 絕對者를 앓친 것이 부질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우리들이 觀念論乃至理想主義로 불려지는 一切의 哲學態度, 思惟態度에 대하여 反對하는 것은 진실로 이 까닭입니다. 存在는 어디까지든지 그 現實構造에 있어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存在를 時間的인 存在로 理解하는 것도 이 時間性이 存在의 한 根本性格이 되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存在는 본래 時間的인 存在가 됩니다. 存在가 時間에 있어서 주어진다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입니까. 存在가 “時間”의 存在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은 不斷히 받고 잇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流動과 轉變, 이것이 存在의 久遠한 運命 또 그 行程이 아니겠습니까. 時間性은 정히 運動性을 意味합니다. 一切의 運動을 가져 오는 根源이 곧 時間에 지나지 안습니다. 存在를 時間的

存在로 보는 것은 그대로 存在를 運動的 存在로 보는 것이 됩니다. 運動的인 存在, 이것이 存在의 根源的, 또 現實的 規定입니다.

存在가 運動的인 存在가 된다는 것은 存在의 運動이 存在한다는 것입니다. 存在의 運動, 여기에서 우리들은 存在와 구별 되는 運動에 만납니다. 이 運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앞에서 “思惟”의 對象으로서 客的인 實在의 世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實在의 世界는 본대 運動의 世界로서의 意味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運動이야말로 世界의 가장 根源的 現實이겠습니까.

觀念論이나 理性主義가 世界를 主로 存在의 側面에서 省察하고 잇는 동안에 現實主義또는 生成의 論理는 世界를 主로 運動의 側面에 잇어서 把握說明하여 왔읍니다.

存在를 時間的인 存在, 運動的인 存在로 理解하고 나아가 存在에 대한 運動의 優越을 主張하여 모두들 運動에 잇어서 이야기하는 한 개 새로운 論理辨證法이 잇음을 우리들은 想起합니다. 運動의 論理로서의 辨證法, 哲學的 思惟는 이 辨證法에 잇어서 어느 “程度”의 具體性을 가추게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辨證法은 오늘에 이르러 自己를 發展의 論理로 주리면서 이 運動의 構造를 이른바 辨證法的 圓環運動으로 圖式化하고 잇읍니다. 이것은 觀念論의 『存在』에서 저즈른 過誤를 辨證法이 『運動』에 잇어서 되푸리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